하루를 시작하며

제주의 미래를 고민하다

허 경 자
㈜대경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제주는 전기차 선도도시다. 많은 이들이 전기차의 메카로 제주를 손꼽았고 국내외적으로 전기차와 관련된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6월초 중소기업벤처부가 심의한 전기차 규제자유특구에서 제주는 제외되었다. 지난 4월 전기차특구 우선협상대상자로 제주가 이미 낙점을 받았었기에 그 충격과 실망감이 더욱 크다. 도내 언론들은 1면 톱기사로 제주도의 안이한 대응을 꼬집으며 분발을 촉구하였고 사설을 통해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세계환경수도제주'의 비전과 함께 카본프리아일랜드2030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보급에 힘써온 제주이기에 그 위상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달 제6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가 막을 내렸다. 50여개국 150여개 기업이 참여하면서 명실상부한 B2B엑스포의 쾌거를 이루었다. 세계 각국의 전기차협회는 제주에서 열리는 엑스포를 통하여 국제적 환경이슈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배출가스없는 전기차보급을 위한 세계전기차협의회(GEAN)를 발족하였다. 그리고 그 사무국이 제주에 소재하는 법인체로서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얻었다. 섬에서 무슨 모터쇼냐 갈치고장에서 웬 전기차냐 7년전 쏟아졌던 부정적 생각과 질타는 제주만의 특성과 전기차를 구체적으로 융합시켜 나간 몇몇 민간인의 도전과 끈기에 박수를 보내며 바야흐로 제주가 세계 EV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다. 사드로 인한 급작스런 국제관계의 단절로 제4회 엑스포는 참가자가 절반으로 줄어 개최만으로도 성공이라 자위해야했고, 엑스포를 탐내왔던 서울에서는 제주의 개최시기를 쫓아다니며 대규모로 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전시기업의 제주참가를 방해하며 곤경에 빠뜨렸다. 내부적으로도 전기차 엑스포에 대한 편견과 압박으로 개최중단의 위기를 맞기도 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민 다수의 선진의식과 전기차에 대한 애정은 전시시설도 없는 제주에서 매년 전기차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는 구동력이 되어주었고 충전의 번거로움과 주행거리의 한계에도 도민들의 자발적인 전기차이용은 제주가 전기차 선도도시로 나가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되었다.

누가 뭐래도 제주의 전기차특구지정은 당연하다. 향후 제주도는 규제개혁특구 지정의 개요 및 정체성을 면밀히 재파악하여 2차협의시 방향의 키를 정확히 잡아야만 한다. 또한 제주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과 그동안 도내 산학연의 다양한 노력으로 축적해온 결과물들을 찾아내어 왜 제주가 전기차특구여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잘지게 피력해야만 한다. 성공적으로 안착된 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대 스마트그리드센터, 제주생산기술연구원 등 전기차관련 기관들과의 연계는 물론 전기차산업에 종사하는 도내 기업군과 제주스마트그리드협회, EV협동조합 등을 구심점으로 취약했던 지역산업육성과 경제활성화, 그리고 청년일자리 확대방안까지 전략적 밑그림을 확실히 그려야할 것이다. 제주의 전기차규제자유특구지정, 이제 그것은 제주도 공무원에게 달렸다.

사설

멧돼지 출몰, 가장 큰 걱정은 인명피해다

언론매체를 통해 종종 도심지에 나타나 활보하는 멧돼지를 접하게 됩니다. 멧돼지가 단순히 출몰하는 수준을 넘어 식당에 들어가 휘젓고 다니거나 슈퍼마켓을 급습해 난장판을 만들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사람을 뒤쫓으며 위협하기까지 합니다. 비록 다른 지방에서 발생한 사례지만 섬뜩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제주에서도 중산간 곳곳에서 멧돼지가 출몰하면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 우려마저 낳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올들어 멧돼지가 출몰하거나 농작물 피해를 봤다며 접수한 민원이 50건이 넘었습니다. 문제는 멧돼지 관련 민원이 갈수록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16년만 해도 6건에 불과했는데 2017년 24건에 이어 2018년에는 6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가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한 25건 중 4건은 멧돼지 관련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멧돼지는 농작물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 4월에는 멧돼지가 제주시 어승생 공설공원묘지 인근 일부 가족묘지를 마구 파헤친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멧돼지를 목격했다는 민원은 치유의 숲과 고근산, 엉또폭포, 솔오름 인근 등으로 점점 저지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멧돼지 출몰지역이 해발고도 500m 이상에서, 최근에는 주택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200~300m의 오름 탐방로 인근에서도 자주 확인된다는 겁니다. 먹이를 찾아 점차 저지대로 내려오면서 자칫 오름 탐방객이나 중산간 지역에서 농사짓는 주민들이 위협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멧돼지는 뚜렷한 천적이 없습니다. 한 번에 새끼를 6~7마리씩 낳아 번식력도 활발해 개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야생 멧돼지를 유해동물로 지정해 2010년 3월부터 퇴치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합니다. 멧돼지는 행동 반경이 넓은데다 해질 무렵부터 출몰하는 야행성이라서 포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귀포시의 멧돼지 포획은 2017년 11마리, 2018년 10마리를 잡는데 그쳤습니다. 올해는 엽사 등 9명으로 포획단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멧돼지 32마리를 포획하는 실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양 행정시를 중심으로 멧돼지 포획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멧돼지의 개체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다도 인명피해의 우려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열린마당

상반기를 정리하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오 민 정
제주시 아라동주민센터

벌써 2019년의 절반이 지나갔다.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일 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버리는데, 자동차세는 연 2회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돼 이러한 일상의 알람 역할을 한다.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다.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6월에,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유에 대해서는 12월에 부과된다. 단, 연 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우 6월에 전액이 부과된다.

세액은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따라서 소유하던 차량을 4월 15일에 양도했다면 1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자동차 소유에 대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 적재정량, 승차정원에 따라 구분된다. 비영업용 일반 승용 자동차 기준으로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우 cc당 80원, 1600cc 이하인 경우 cc당 140원, 1600cc 초과인 경우 cc당 200원으로 연 세액을 산출하며 계산된 세액에 지방교육세 30%가 함께 부과된다.

또한, 자동차 차령이 3년이 되는 해부터 매해 5%씩 경감돼 차령이 12년에 도달하면 최대 50%까지 경감받게 된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기한을 경과하면 가산금(3%)을 부담하게 된다. 은행 CD/ATM 수납, 읍면동 카드 수납 외에도 납세자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ARS 납부(1899-0341), 자동이체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번호 및 인터넷 뱅킹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6월, 자동차세 1기분을 납부하며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민원인 위해 직원들이 안내도우미 활동"

제주시, 성매매 근절 캠페인

○…제주시가 산지천 일대에서 성매매 근절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전개해 눈길.

제주시와 건입동청소년지도협의회·일도1동청소년지도협의회·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인 제주현장상담센터 '해냄', 여성긴급전화 1366 및 시·도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은 지난 17일 산지천 일대에서 성매매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이들은 특히 숙박업소를 방문해 성매매를 제공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해 준 건물주는 처벌대상이라는 것을 강조. 고대로기자

서귀포시, 빠른 민원처리 눈길

○…서귀포시 생활환경과가 사무실 입구에 '생활민원 터놓는 자리'를 마련하고, 민원인 방문이 많은 시간에는 직원이 민원안내 도우미로 나서 눈길.

이는 폐기물사업장, 재활용업체 관계자에서부터 공동주택내 생활폐기물 적치장 설치 관련 등 담당 공무원을 빠르게 안내하고, 민원인이 많아 비좁은 사무실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대비한 조치.

과 관계자는 "하루 20여명 안팎에 이르는 민원인들의 빠른 민원 처리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직원들이 직접 안내도우미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 문미숙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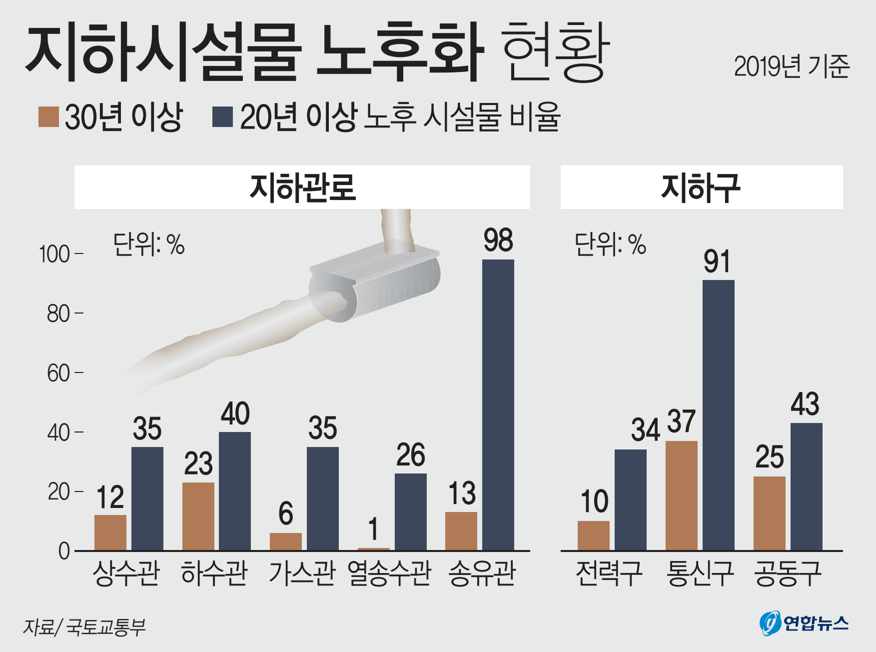
더럭초, 교내정자 친환경 공간

○…무지갯빛 건물로 유명세를 탄 더럭초등학교가 최근 교정 내 정자를 친환경 공간으로 개보수.

더럭초에 따르면 교정 내 목재 정자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썩어 안전을 위협하자 학교 행정실 주무관의 세심한 구상과 재료 선택으로 개보수 작업을 거쳐 재탄생.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해롭지 않은 오일스테인으로 칠하고, 등받이와 의자를 만들어 휴식과 학습이 동시에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었다"며 "주변은 보도블럭으로 정리해 놀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 표성준기자

그래픽 뉴스



부 고

오태영(현대중공업 부장)·태헌((주)아트피큐 대표이사, (사)제주ICT기업협회 회장)·태림(LG전자 인사팀책임) 아버지 군위오공 만흥(前 제주대학교 실습선 선장·향년 72세) 께서 서기 2019년 6월 17일 08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6월 20일(목)
▶발인일시: 2019년 6월 21일(금) 오전 7시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4분향실
▶장 지: 성산읍 수산리 선영

부 인 현영자
아 들 오태영 며느리 박지원
태헌 문정미
태림 윤정은

※연락처 : 오태영 010-2690-0360
오태헌 010-7742-2043
오태림 010-7544-2043
현영자 010-3949-2043
박지원 010-4162-6152
문정미 010-5593-2043
윤정은 010-3943-2165

부 고

고봉준(미국 IBM왓슨연구소 수석연구원) 아버지 **제주고공 두형(국가유공자·前 고바우가구 대표·향년 89세)** 께서 서기 2019년 6월 17일 12시 5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6월 19일(수)
▶발인일시: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6시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부 인 박병선
아 들 고봉준 며느리 김희경
딸 고영림 손 자 고성주
영숙 성민
은숙 외손자 박종현
현숙 종범
혜정

※연락처 : 고영림 010-3745-5367

부 고

고성림((주)CHM 근무) 아버지 **제주고공 영주(국가유공자·향년 93세)** 께서 서기 2019년 6월 17일 22시 5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6월 19일(수)
▶발인일시: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6시 30분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3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 들 고성림 며느리 양은심
성진
딸 고옥순 사 위 김창희(故)
옥림 한석기
옥만(故) 김유언
해숙 강주열
은숙 김선식

※연락처 : 고성림 010-4531-6770
고성진 010-3692-3516

부 고

강기옥(우신금속) 어머니 **연주현씨 복희(향년 86세)** 께서 서기 2019년 6월 18일 08시 2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19년 6월 19일(수)
▶발인일시: 2019년 6월 20일(목) 오전 8시 30분
▶발인장소: 제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분향실
▶장 지: 성산읍 시흥리 선영

아 들 강기옥 며느리 고순하
기호 김순자
기석 배지연
기창 임미영
기철 오수진
딸 강금진

※연락처 : 강금진 010-9546-2266
강기옥 010-4580-8087
강기호 010-4845-2617
강기석 010-4222-2491
강기창 010-9615-5559
강기철 010-8619-7559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제주양씨 평오(향년 9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6월 19일

아 들 강창익 며느리 양숙자
성익 김지희
홍익 고본실
딸 강연희 사 위 이영화
연주 김윤중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19년 6월 12일 주주총회로 갈음하는 주주전원의 서면결의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을 선임하여 청산절차를 진행중이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19년 8월 20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19일

포웨이 주식회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원1길 23, 202호 (연동, 뉴제원)
청산인 변 경 남

감사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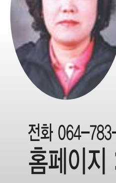
이번 저희 아버지 **서동호(향년 71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옵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6월 19일

부 인 이희숙(글라라)
아 들 서병철 며느리 황혜연
병근 김은영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른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미국식품의학회 SCI A급 등록
대학병원 임상결과 1일 5g섭취 식품안전성 입증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 진흥원 판매장 등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흘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백도라지연구소